

고향에는 그들이 있기에 안심됩니다!

—룡정시 삼합진 학서촌 촌주재 공작대 간부들의 이야기



병원에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 룡정시 삼합진 학서촌 촌주재 공작대 강영호 주임

일본일초를 닮며 병원으로

4월 11일 오후 5시경, 룡정시 삼합진 학서촌 촌주재 공작대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강영호 주임(연변주 기상국)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거의 매일이다 싶어 위챗으로 연락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집에 계시는 나의 어머니가 위태하다는 긴급한 내용이었다. 진위생소에서 링게르 두통을 맞았지만 혈압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고 구토가 매우 심하다고 했다. 때는 이미 오후 5시가 넘어 택시를 부르기도 어려웠고 동네에 와있던 개인 차들도 광고롭게 모두 시내로 간 상황이었다. 일본일초 간박한 상황 속에서 강영호는 룡정시인민병원의 120 구급차를 호출했고 동시에 이웃마을에 사는 학서촌의 김룡남 전임 서기에게 전화해 나의 어머니를 모시고 룡정시인민병원으로 출발했다. 학서촌에서 룡정시까지지는 50여키로미터, 릴레이식으로 120 구급차를 갈아탄 후 가장 빠른 시간에 룡정시인민병원 급진실로 들어갔다. 도착하자마자 강영호는 혼자서 77세 되는 로인을 모시고 CT 검사도 하고 입원수속도 하면서 저녁 8시가 넘도록 식사도

하지 못했다.

군인 출신 퇴직간부 립광군 전 대장도 소식을 전해 듣고 늦은 밤이지만 세수대야, 타월, 치솔, 치약, 광천수, 온수팩 등을 사가지고 연결에서 직접 차를 운전해 병원으로 찾아왔다. 퇴직해서 이미 어려해 동안 학서촌에 뿌리내리고 있는 립광군은 나의 어머니를 '아재'라고 부르면서 말아들 노릇을 해왔다. 그날 밤, 강영호와 립광군은 병원에서 나의 어머니를 정성껏 간호했을뿐더러 이튿날 아침에는 죽을 사다가 대접하게까지 했다.

자식 못지 않게 정성스레

나도 이제는 원이 넘었지만 고향을 떠나온 지가 오래되어 어머니 병시중을 들어본 적이 한번도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른다. 어떻게 보면 아들보다도 주위 분들의 정성이 더 깊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낯나는 말의 뜻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다음날 삼합진 부진장이며 학서촌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강일선 서기가 병문안을 왔다 갔다고 한다.

팔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 왔던 걸음에 짙은 내 문안을 왔던 것이다. 성능업청에서 학서촌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진설풍 제1서기는 우리 어머니가 고향에 홀로 계시고 외동아들이 먼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정을 헤아려 강영호에게 며칠간 잘 간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강영호가 정성스레 간호한 덕분에 우리 어머니의 병세는 빨리 호전되어 나도 어느 정도 시름놓게 되었다.

학서촌의 회계 최영실은 소식을 듣고 그동안 뵈래도 하지 못한 사정을 알고 나의 어머니가 입었던 옷들을 주동적으로 집에 가지고 가서 세탁했다. 너무나도 고마워서 최영실에게 위챗으로 연락드렸더니 "기회가 되니까 로인께 효도를 하는 겁니다."라는 짧은지만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답장을 보내왔다. 이외에도 전에 촌에서 회계사업을 해왔던 황급복녀사도 우리 어머니의 입원 사정을 알고 맛있는 돈까스를 챙겨드렸다고 한다.

오늘날 사회 인정이 매마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후더운 인정과 상부상조하는 기풍이 넘쳐흐르고 있는 것이다.

고향의 든든한 대들보

매번 고향에 갈 때마다, 그리고 거의 매일이다 싶어 위챗으로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고향마을과 촌주재 공작대 간부들의 사적을 많이 들어왔다. 이번에 직접 체험하고 느껴보니 강영호, 진설풍, 최영실, 강일선을 비롯한 촌주재 공작대 간부나 립광군, 김룡남과 같은 동네 분들은 오늘날 정말 '살아있는 회봉'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55세인 강영호는 비록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봄과종부터 시작해서 모내기, 김매기, 가을수확에 이르기까지 굵은일, 어려운 일 가리지 않고 무상으로 동네 일을 도와주고 있다. 지난 겨울에도 별로 쉬지 못하고 여러 집의 뿔나무를 해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학서촌에서는 강영호를 '동네 보배', '동네 머슴'이라며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 김룡남 전임 서기는 "강동무는 만나본 간부중에서 제일 '고집'이 썩니다. 비록 원이 많이 넘었지만 그 어느 젊은이보다도 이와스레 일합니다. 그는 겉치레없이 진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촌민들의 가슴속에 뿌리내렸습니다!"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기층의 버팀목

지금 강영호는 학서촌을 자신의 제2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책하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다. 어느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으면 가서 문을 두드려보기도 하고 그들 자식들에게 모두 잘 보내고 있다는 메시지도 잊지 않고 보내주곤 한다. 비록 고향을 멀리 떨어져있지만 강영호가 공유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수시로 고향 소식을 접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감동적인 사연을 계기로 고향의 민심과 인정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다.

고향에는 립광군이라고 하는 큰 형도 있고 동창 김룡남도 있다. 특히 강영호와 같은 고향의 '기둥', '통신수'도 있다. 나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고향의 지킴이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이 안심되고 고향이 자랑스럽게 생각된다. 이는 나의 고향만이 아닌, 고향을 멀리 떠나 나처럼 외지에 있는 자식들의 생각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 많은 이들의 공감대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공감대가 널리 퍼져 고향이 고수준으로 발전하고 우리 사회가 더 진보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 리성일

임대료가 없는 이동형 카페 각광



산성성 한중시 면현의 한 황금빛 유채꽃밭의 바로 옆 도로에 주차된 카라반에서 향긋한 커피향이 솔솔 풍긴다. 이 카라반은 조광승(趙宏勝)의 이동형 카페다.

"하루 수입은 약 500 원입니다." 몇년전과 비교해 수입이 줄었다고 밝힌 조광승은 "관광객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경쟁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4년째 이동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조광승은 계절에 따라 차를 몰고 다니며 다양한 관광지를 찾는다. 때때로 신강위글자치구와 같은 지역으로 먼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다년간 중국 농촌 활성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교통, 공공시설, 자원봉사 등이 크게 개선됐다. 덕분에 도시생활에 지친 젊은이들은 휴일이나 주말을 이용해 경치가 좋은 농촌에서 캠핑이나 도보 관광을 즐기게 됐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전역의 농촌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은 7억 700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8.9% 증가한 수치다. 관광수익은 5.6% 늘어난 4,120억원을 창출했다.

면현의 관련 책임자는 현지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유채꽃 축제 주최측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젊은 소비자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카페가 관광객에게 농촌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된 리유다.

조광승과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유행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했다. 조광승은 "매장의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도심 카페에 비해 커피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중경시 출신인 주취 부부도 이동형 카페 대열에 합류했다. 이 부부는 중경에서 10년 카페를 운영하다 지난 2023년 50만원을 들여 레저용 차량을 구입하고 이동형 카페를 오픈했다.

이들은 도로 위에서 사업을 하며 여행도 즐긴다.

주취는 "호박색에 벗꽃 구경을 왔다가 SNS를 통해 한중시에서 개최하는 유채꽃 축제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해 계절과 풍경을 즐기며 지금까지 약 5만키로미터를 돌았다고 덧붙였다.

그의 아내 왕춘연도 지금의 자유로운 생활을 즐긴다. 그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현재의 자유로운 생활을 선택함에 있어 돈이 가장 큰 이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다음 행선지로 서안시와 청해성을 갔다가 여름이 되면 무더운 날씨를 피해 내몽골자치구로 이동할 계획이다. / 최화넷

장백현, 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



장백조선족자치현차세대관심사업위원회 '땀산호항'(撐傘护航) 활동기지 현판식이 4월 10일 오전, 장백현새시대문명실천전증소에서 진행되었다.

장백조선족자치현차세대관심사업위원회 주임 왕결, 장백조선족자치현문명판공실 주임 왕화사, 장백조선족자치현차세대관심사업위원회 5로강연단 성원 및 여러 기층 차세대관심사업위원회 해당 책임자들이 이날 현판식에 참가했다.

현판식에 앞서 왕결은 이번 활동에 참가한 관련 부문의 책임자들과 장기간 청소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관심을 베풀어준 동료들, 그리고 5로 인원들에게 열렬한 환영과 함께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했다.

'땀산호항' 활동기지의 현판은 장백조선족자치현 차세대관심사업의 하나의 중요한 혁신으로 전사회의 힘을 모아 청소년들이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수립하도록 돕는 데 취지를 두었다. 차세대관심사업은 국가의 미래와

민족의 희망과 관련된 일이다. 청소년들은 나라의 기둥이자 사회의 재부이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은 가정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보와 나라의 번영발전에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장백조선족자치현차세대관심사업위원회는 급후 다양한 형식으로 '땀산호항'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홍색유전자 전승을 융합하며 5로 인원들을 관심하고 애국주의교양을 위주로 사회각계의 힘을 합쳐 광범한 청소년들을 잘 인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당과 조국을 열애하고 인민을 열애하는 위대한 리상을 수립하게 한다. 동시에 더욱 진강하고 조화로운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여 진정으로 덕, 지, 체, 미, 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 계승자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분투하게 된다.

현판식에 이어 활동에 참가한 관련 인원들은 장백조선족자치현차세대관심사업위원회에서 한창 진행하고 있는 '땀산호항' 브랜드 활동 생방송을 시청했다. / 최창남

평안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관광경제 조력

—장백변경관리대대, G331 관광 브랜드 건설에 총력

길림성 변경에 곁게 뻗은 국도 G331 연선의 촌들은 마치 진주마냥 아름답게 빛을 발산하고 있다. '장백비경 길선 331'(长白秘境吉线 331) 브랜드 건설이 다그쳐지면서 장백진변경관리대대는 현황과 임무에 착안하여 '변경관광 + 변경치리 + 변경관리 통제'의 다각적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총력을 다해 평안변경 건설에 조력하고 있다.

‘마음 대 마음’ 봉사로 특별한 온정 전해

"신분증 정보를 카메라에 등록해주세요..." 4월 8일, 백산변경관리지대 장백진변경검사소에서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순조롭게 검사를 받고 있었다. 국도 G331 연선의 핵심 집합지인 이 대대는 '관광 110' 경무운영 모식을 구축하고 변경경찰봉사소, 변경검문소, 경무실 등 시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국의 변경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동시에 관광안내,



법률선전, 물품림시보관, 긴급구조 등 편민 봉사를 제공하여 관광객뿐만 아니라 변경 관할구역 군중들의 안정감, 행복감, 만족감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철통경비’로 안전망 구축

장백진변경관리대대는 '장백비경 길선 331' 브랜드 건설을 지원하는 동시에 변경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당시 주둔 해방군, 향진, 사회구역의

군중치안조직과 협동통제 체계를 구축했다. 해당 체계는 안전시설과 주요 통로 등 국도 G331 연선에 대해 '차량 순찰 + 도보 순찰'을 실시하고 변경 일선 전반 상황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며 안전시설들을 일일이 검사하고 각종 범죄활동의 발생을 제때에 억제하고 있다. 장백진변경관리대대는 또 향진의 주요 거리에 경찰을 파견하여 사회구역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치안순찰을 하면서 변경 정책법규 및 안전지식을 집중 선전하여 공동치리의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점 대 점’ 관리통제로 안전우환 제거

국도 G331 연선의 관광경제가 지속적으로 뜨거워지면서 장백조선족자치현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경보등이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선을 이루고 있다. 장백진변경관리대대는 '9개의 작은 장소'에 대한 안전감독

관리, 국도 G331 연선 시공현장 안전내판 설치, 관할구역의 류동인구 및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조사 등 일상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경일선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동시에 시공현장, 영업장소, 인기 관광지, 주민 단지 등 중요한 구역을 중심으로 관리통제 강도를 높여 안전우환을 제때에 제거함으로써 관할구역의 주민들과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조화로운 변경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변경이 흥하면 변경이 안정되고 변경이 튼튼하면 변경 주민들이 안전하다. 장백변경관리대대는 지속적으로 변경 관리통제 강도를 높이고 봉사 품질을 부단히 향상시켜 모든 관광객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동시에 경찰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장백비경 길선 331' 브랜드의 건설을 위해 튼튼한 안전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 정현관기자, 리준량(李俊良), 리가예(李佳銳)